



강원지역 기후변화 적응사업발굴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증가로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volume)과 형태(variety), 생성속도(velocity)와 더불어 데이터의 가치(value) 분석을 통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연관어 감성분석과 출현빈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영역의 완화(감축)와 적응의 인식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대응, 완화(감축), 적응에 대한 연관어 분석결과 대부분 심리와 연관된 연관어들이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연관어가,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관어가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기후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완화(감축)에 대한 연관어는 중립적 연관어가 나타난 반면, 적응에 대해서는 긍정적 연관어와 함께 부정적 연관어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기후변화 적응의 경우, 초기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저감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적응의 주체인 지자체 차원에서 재해저감보다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가치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검색어 출현빈도를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8년 동안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검색어 출현빈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검색어 출현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완화에 대한 검색어 출현빈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준비기간에 최대로

출현한 이후 그 출현빈도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출현빈도는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 수립시점에 맞추어 검색어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적응에 대한 관심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PCC 제3차 보고서가 발간된 2001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적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제5차 평가보고서(2014)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패러다임이 적응을 아우르는 완화, 완화를 아우르는 적응 또는 사전대응 능력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적응역량강화로 바뀌고 있어 완화를 아우르는 적응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단계별 세부내용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하여 T/F 구성,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분야별 적응대책 발굴 및 선정,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등 4개 세부내용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의 확립을 위해 연구센터내 팀원별 마인드맵핑을 활용해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통해 과학적 근거, 분배, 공유, 통합과 이러한 단어들을 경제성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을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로 확정하였다.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근거가 확실한 대책, 다목적 대책, 종합 대책,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했을 때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지역 적응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고,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내 기후변화 적응 인식향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적응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강원도민의 기후변화 적응 인식제고와 지역 현실에 맞는 적응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강원지역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심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심사결과 ‘소양호 방류수를 이용한 폭염피해 방지시설 및 노인 휴게공간 건립’ 등 5건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주요한 필요조건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예산확보 방법으로는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기부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중 지자체에서는 국비 확보를 통한 방안이 신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 대표 국비확보 적응사업을 조사하여 이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빗물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저탄소형 Smart-City 구축, 생물다양성 마을 조성, 친환경오폐수 정화시스템 설치, 식물종자은행 설립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제안하였다.

본 정책과제 중 아이디어 공모전은 강원도민 접촉을 통한 기후변화적응 홍보로 도민 기후변화 적응인식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본 정책과제의 결과물인 공모전 결과 아이디어와 발굴된 제안사업들은 대표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활용 가능하며, 도내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시 신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제공할 계획이다.

㉮ 키워드 : 기후변화 적응, 빅데이터, 공모전, 적응사업